

러시아 한국학의 개척자 - 미하일 박 교수

박 노 자

편집실에서

『정신문화연구』에서는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외 한국학 동향’이라는 난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러시아 한국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미하일 박 교수와의 대담을 실는다. 미하일 박 교수는 수십년간 러시아 지역의 한국학 관련자료를 집성하여 모스크바대학교에 한국학 국제 학술 센터를 설립했고, 전소(全蘇) 고려인 협회 회장으로서 재러 한국인을 위해서도 헌신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 대담은 러시아 지역 한국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학술교류의 방향을 전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담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인 박노자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약 력

- 1918년 6월 22일 (양력), 하연추 (연해주 沿海州의 니콜스크-우수리이스크 縣)에서 탄생. 부(父): 니콜라이 카리토노비치 박 (1880-1938), 모(母): 마리아 (안나) 이바노브나 박 (1874-1947).
- 1930년 농촌의 협동화 캠페인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향 (離鄉).
- 1930~1935년간 - 원동(遠東) 및 동부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가족과 함께 전전(轉轉).
- 1935년 - 가족과 함께 야로슬라블시(市) 이주.
- 1936년 - 모스크바의 철학·문학·역사 대학(MIFLI) 입학, 고전 언어 (라틴 등) 학습 시작.
- 1937년 - 아버지 체포.
- 1938년 - 아버지 총살, 형 체포·수형(受刑). 미하일 박의 콤포소 (공산주의 청년 동맹) 제적.
- 1941년 - MIFLI 졸업, 크즐-오르다시(市)에서 소개(疏開)중이었던 우크라이나 국립대에서 세계사 강사로서 취직, 준(準)박사 과정 입학. 계봉우 선생과 상봉.
- 1945년 - 라잔시(市) 사범대학교 세계사 전임강사 취직.
- 1947년 - 준(準)박사 (kandidat nauk) 학위 취득 (학위논문의 주제: 『19세기 후반 조선 정치사 개요』)
- 1949년 - 모스크바국립대학교로 이적(移籍), 한국사 강좌 설치, 한국사 교수 개시.
- 1956년 - 삼국 시대의 사회·경제적 구성에 대한 논문 발표, 북한 학계에서의 토론 자극.
- 1959년 -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의 노역(露譯) 주석(註釋)본 발간.
- 1960년 - 『신라본기』 노역으로 국가 박사 (doktor nauk) 학위 취득.
- 1963년 - 정(正)교수로 승진.
- 1971년 - 극동·동남아 역사학과의 학과장으로 취임 (1992년까지 재임).
- 1974년 - 『한국통사』 교과서의 제1권 책임 편집, 고대사 서술 담당.
- 1979년 - 『한국 초기사의 개요』 출판.
- 1982년 - 하와이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1987년 - 『한국사학사 개요』의 출판.

‘모스크바 고려인 협회’ 발기

1991년 - 전소(全蘇) 고려인 협회 회장 피선(被選)

모스크바대학교 한국학 국제 학술 센터 설립 (고합 그룹 후원).

1992년 - 대한민국 동백장 훈장 수훈(受勳).

1995년 - 『삼국사기』의 『고구려·백제 본기』 및 『연표』의 노역 주석본 발간

1997년 - 모스크바 국립대의 최고학술상 (로모노소브상) 수상(受賞).

저 서(편저 포함)

『삼국사기』 노역본 제1권 (『신라본기』), 모스크바, 동양서적 출판사, 1959

『한국통사』 제1권, 모스크바, “나우카” (과학) 출판사, 1974.(책임 편집, 감수)

『한국초기사의 개요』, 모스크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출판부, 1979.

『한국사학사 개요』, 모스크바, 중앙 동양서적 출판부, 1987.

『삼국사기』 노역본 제2권 (『고구려·백제 본기』, 『연표』), 모스크바, 동양서적출판사, 1995.

『삼국사기』 노역본 제3권 (『잡지』, 『열전』), 모스크바, 동양서적출판사, 2002년
출판 예정.(책임 편집 감수)

민족의 시련과 한국사 연구의 시작

문 : 교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답 : 1918년 음력5월 13일 (양력의 6월 22일)에, 하연추 (러시아식 이름은 Yanchihe)라는 고려인 (재러 교포)의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의 행정 구역으로서는 연해주(沿海州; Primorskaya guberniya) 니콜스크 우수리스크현(縣)(Nikol'sko-Ussuriyskiy uezd)이었으며, 현재의 행정 구역으로서는 연해 변강(沿海 邊疆; Primorskiy krai) 하산 구역 (Khasanskiy rayon)이지요.

문 : 태어나신 곳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답 : 약 70년 전에 고향을 떠난 뒤에, 다시 가볼 기회는 늘 없었지요. 최근에 거의 7순만에 고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10월 달이었지요. 그때 손녀딸과 같이 갔어요, 손녀딸에게도 조상의 고향의 맛을 느껴보기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의 하연추는 다 없어졌지요. 학교도 교회당도 다 오래 전에, 1937년의 우리 교포의 강제 이주 직후에 헐어버린 셈이지요. 폐허의 벽돌만 약간 보였을 뿐이라고요. 그걸 보고 기분이 참 희한했지. 물론, 1930년도에 고향을 떠난 나로서, 70년 만에 어렸을 때의 강산을 다시 찾는 것은 여간의 감격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우리 집도 그렇고, 그 당시에 기억됐던 우리 동포의 집들이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난 산, 계곡들을 보고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렸지만, 지금의 그 마을이 우리 교포들이 살았던 그 마을과 무관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아이 때 맨발로 걸어다니곤 했던 하천마저도 없어진 것이에요. 토양이 바뀌어서인지 말라버린 셈이라고요. 내가 그 때 생각했지. “참, 칠순의 세월이 산천까지도 변하는 거구나!” 한데, 손녀딸에게 우리 고향을 보여주었으니 만족감을 느꼈어요.

문 : 하연추가 의병 운동의 하나의 중심지라고들 하는데요?

답 : 그게 맞는 말이지. 바로 우리 마을의 낙농장(酪農場)에서 안중근(安重根)의사가 그 유명한 단지(斷指) 서약을 내린 것이에요. 몇 년만에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살하겠다는 약속이었지요. 말하자면, 이등에 대한 일종의 사형(死刑)의 선고이었어요.

문 : 혹시, 미하일 박 교수님의 친척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독립 운동가들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답 : 우리 조부님과 여러 친척들이 최재형(崔在亨, 러시아 이름은 Pyotr Semyonovich Tsoi) 선생하고 잘 아는 사이이었답니다. 우리가 친해서 그를 대개 그의 러시아 식 이름의 아명(兒名)인 ‘페티카’(Pet’ka)로 불렀어요. 그의 초상화는 우리 집에 늘 걸려 있었지요.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토호, 부농에 대한 소위 ‘계급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됐기에, 그 초상화를 숨겨버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잘 기억하겠지만, 최재형 선생은 원래 재력이 좋아 노야(老翁)까지 지냈어요. ‘노야’라는 게 사실 러시아식 직명인 ‘volostnoi starosta’의 한자 번역어라고요.

문 : 독립 운동과의 또 다른 관계를 가지셨는지요?

답 :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부모님들께서 안중근(安重根)을 잘 아셨습니다. 내가 그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응칠’(應七)이란 그의 아명(兒名)으로 말쑤
를 들었지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명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안중근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 정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지요. 9살까지는, 나는 우리말만 했지요, 소학교도 우리 겨
레 민족 학교로 다녔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한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결국,
러시아어를 제2모국어로 쓰게 된 것이예요. 하기야 사실은 이미 제 모국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유감이 큰 일이지요.

문 : 고향 하연추를 언제, 어떻게 떠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답 : 1930년대는, 소련 역사, 그리고 그 일부분인 원동(遠東)의 고려인 역사에 다사
다난한 시기이었어요. 소위 협동농장화 정책으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파괴
되고 이농(離農) 현상이 심화됐어요. 우리 마을도 그 때 협동 농장이 생기고 온
갖 고생을 하게 됐어요...

문 : 그러면, 협동화 정책의 결과로, 언제 고향을 떠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요?

답 : 처음에 아버님의 아우 분이 계셨던 마을에 이사갔다가, 홍수 때문에 거기의 생
활도 어려워지자 스파스크 - 달니 (Spassk-Dal'niy)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가
기 전에 비건시(市)에서 소위 ‘농민 청년 학교’에 일년간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해봤어요. 그 학교는, 소위 ‘노동 교양 (즉 노동 실습) 만 시키고 아무 것도
제대로 배워주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나에게 일종의 ‘인생 학교’의 역할을 해
준 셈이었어요. 자기 생활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했어요. 그 학교의 내부 구조는, 자율적인 ‘아동 조합’
에 가까웠어요. 막일들을, 당번서는 아이들이 맡았는데, 나는 1주간에 6~7 차
례에 걸쳐서 당번을 선 일도 많았지요. 마구간 청소나 밭 지키기, 타작과 같은
당번들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막일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힘든 건
주방 당번이었지요. 물과 음식 재료를, 겨울에 다 썰매로 운반해야 했고 얼어
붙은 강에서 물을 기워서 써야만 했고... 물통은 그 때의 내 키보다 높았고.. 물
에 듬뿍 젖어서 얼음덩어리가 돼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지. 하여튼, 그 시절에
나에게 공부의 기회라고 전무했다고요.

문 : 그러면, 그 때 못하신 공부를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 : ‘노동 교양’의 결과로, 중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지요. 혈관이 터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겪은 고생에 비해서는, 그건 아직 약과이었지... 나중에 정상적인 학교인 철도청 부속 학교에 다녔는데, 아이들 중에서 수석을 했지요. 그 때 인생 최초의 상(賞)을 받았는데, 천(織物) 한 개이었어요. 궁핍하기 짝이 없었던 그 시절에, 그게 엄청난 부(富)이었지 그러나 그 때 티푸스라는 유행병이 스파스크 - 달니를 덮치자 그 다니기 좋은 학교가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그 때 우리 아버지까지 실직을 당하셔서 생계가 매우 곤란해졌어요. 결국 보다 큰 도시인 치타(Chita)로 갔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철도청 부속 학교를 찾아서 다니게 됐고, 7,8,9 학년을 잘 다닌 뒤에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과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냈어요. 그 때의 대학교 학칙으로는, 내 졸업장으로 아무 대학도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이동 생활이 치타로 종료되지 않았어요. 1935년도에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야로슬라블(Yaroslavl)라는 서부 러시아 도시로 이주 가셨어요. 내 형님이 거기에서 장교로 복무했기 때문에 이주를 결정하신 거지요. 그 시절, 내가 이미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교장 선생님이 참 착하신 분이셨지. 하얼빈 거주자 출신의 문학 선생님도 늘 기억 속에서 남아 있어요. 그 분이 ‘출신 성분’ 때문에 나중에 잡혀가셨어요.

문 : 검정 고시 통과 이후에, 1936년에 입학하신 대학교는 바로 그 유명한 MIFLI (‘모스크바의 철학·문학·역사 대학’의 약칭)이었습니까?

답 : 그럼, 그 때 나의 동창들이 소설가 시모노프 (K.Simonov; 1915 ~1979; 소련의 저명한 소설가, 시인 - 역자의 주), 시인 드바르도브스키 (A.Tvardovskiy; 1910-1971; 저명한 작가이자 문학 권위자 편집인 - 역자의 주) 등과 같은 미래의 큰 문인들이었어요. 나중에 문인으로 출세할 사람 말고도, 셸레핀(A. Shelepin, 1918~1994)과 같이 공산당 거물이 될 인물들도 내 주위에 있었어요. 셸레핀 동문이 크루초브 집권 시절(1953~1964)에 KGB 총장을 했지요. 나중에 브레즈네프 시절(1964~1982)에 점차 권력을 잃었던 사람이예요. 하여튼, 대학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참 훌륭했어요. 그 때 3년 동안 라틴어를 배워 갖고 그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어요. 오비디우스 (43 B.C. ~ 17 A.D.)의 『변형담』(『變形譚』)에 그때 아주 빠졌지요. 유럽 고전 언어 공부의 경험은 나중에 한문 공부에

도 크게 유용했어요.

문 : 유럽의 고전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시다가 한국학을 하실 생각을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혹시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지요?

답 : 1937년, 고려 민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우리 겨레를 아끼는 마음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우연히 카자흐스탄의 크즐 오르다시(市)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고려족의 석학 계봉우(아호: 뒷바보) 선생님을 뵈게 됐지요. 계봉우 선생님은 그 도시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 고려족 모두들과 같이 강제로 끌려와 본의 아니게 크즐 오르다시에 오시게 됐지요. 그때 내가 한참 한국사에 대한 연구열을 불태웠기에, 계봉우 선생님께서 흔쾌히 나에 대한 지도를 맡아 나에게 한국어의 사학 전문용어와 한문을 가르치셨지요. 그 분의 미간(未刊) 원고인 『조선역사』, 『동학폭동전』을 한글로 읽으면서 내 한국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 분이 3개월 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에 우리의 공부도 일찍 끝났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그 분의 미간의 원고를 수집해서 나중에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과학원에 잘 맡겼지요. 거기다 보관하라고 맡겼기에 그 원고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발간될 수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 때부터 한국의 서적에 관심을 두고, 「청일 전쟁과 조선」이라는 최초의 한국학 관련 글을 학년 논문으로 내놓았지요. 나중에 이와 관련된 주제로 준(準)박사 학위논문까지 쓰게 됐어요.

문 : 강제 이주 당시 교수님의 선친께서 무고하게 총살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답 : 원동(遠東)에서 서부 러시아의 도시인 야로슬라블로 갔다고 해서 간첩으로서 오해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그 때는 마침 전체의 고려 민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해라 일체 우리 겨레에 대한 탄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체포·총살되신 뒤인 1938년에 야로슬라블에서 복무하셨던 형님도 체포되시어 시베리아로 잡혀가셨어요. 그의 전임자도 똑같이 잡혀간 사실로 그 당시의 광기가 얼마나 비상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형님께서 노릴스크(Noril'sk)이라는 북부 시베리아 도시의 근처에 있는 은광(銀鑛)에서 거의 20년 동안 수용소 및 유배 생활을 하신 거죠. 일찍 화학 공부를 하신 덕에, 금은(金銀) 분석

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1956년에 석방되신 뒤에도 그 쪽의 분석 실험실에서 계속 일하여 결국 실장직을 맡게 됐어요. 은퇴를, 1973년에 하셨지요. 그 뒤에 연금 생활을 하셨다가 1986년에 79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어요. 이러한 고생은, 어떻게 보면 재소(在虜) 동포 즉 고려인들의 역사적인 운명을 대표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 소련에 있는 우리 겨레의 상황으로서 특이한 일이었어요.

문 : 학계에의 본격적인 진입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답 : 1947년에 준(準)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학계에 들어온 셈이었어요. 그 때 학위 논문의 주제는, 『19세기 후반 조선 정치사 개요』이었어요. 거기에서 김옥균(金玉均) 등의 급진 개화파들을 호되게 비판했지요. 내 결론이 무엇이었는데 가하면, 소위 ‘개화파’가 친일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대외 의존적 패관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수구파(위정척사)는 어떻게 보면 애국의 대의를 내걸었던 셈이었지요. 물론, 그 당시의 조선의 역사적인 환경에서는 불가피한 비극이라고 봐야겠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조선의 식민지로의 전략은 거의 불가피한 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후기의 경제적인 수준으로는 소위 ‘자립형 근대화’가 객관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문 : 주장의 강약에 차이가 있지만, 남·북한의 주류 사학은 대개 ‘자본주의 맹아론’과 연결되는 학설들을 지금도 통설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의 대부분의 학자는 조선후기의 상품 경제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자립형 근대화’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답 : 물론,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지요. 즉, 발전의 방향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자본주의 쪽으로 돌려져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인 방향은 어쨌든 간에, 19세기 후반까지는 자본가(상인)층의 정치세력화는 전혀 안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조선은 지주와 농민의 전통적인 사회로 남았지요. 신분 구조의 변천을 봐도, ‘근대 지향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광의의 양반층의 헤게모니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회의식 차원에서는, 근대적인 ‘민족’보다는 전근대적인 지방 당파 문벌 소속이 일차적이었어요. 사실, ‘민족 단결’이란 거의 전무했던 시절이었지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을 지향했던 개화파는 객관적으로 조국의 식민화에 ‘기여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식민지 시절 엘리트의 자손들이 남한의 지배층으로 남아 있어요. 한국에서는 ‘식민지 유산의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실, ‘친일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그 나름의 차이가 있겠지만, ‘친일파’가 식민지 시절의 조선인 특권층의 총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청소’하겠습니까? 김일성 식의 ‘계급 혁명’으로 하면 몰라도, 그것도 실제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지요. 그러나 한국 내에서의 요즘의 토론의 세부적인 상황을, 내가 잘 모르고 있지요.

문 : 교수님께서 한국 역사의 강좌를 어떻게 창립하시게 됐습니까?

답 : 나는 1945년부터 라잔 (Ryazan)이라는 모스크바 근처의 도시의 사범 대학에서 세계사 강의를 맡았어요. 1949년에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에 이적 (移籍) 하여 한국 역사 강좌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즉, 1949년 9월 1일부터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의 강단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게 됐어요. 이미 거의 52년이 지났지요? 우리 대학에서 나는 아마도 최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지금 내가 재직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연구부 (ISAA)가 없었을 때, 역사학부의 부교수로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ISAA가 생기고 나서 여기로 옮겨왔지요. 그 때부터 한문 공부를 계속 해왔고, 북한 책을 읽고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사학과의 만남과 갈등

문 : 1940년대 말부터 교수님께서 소련의 각종의 백과사전 등에서 한국사 관련 저술을 맡으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의 그러한 저술에 대해서 북한의 ‘주류’ 사학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답 : 글쎄, 1940년대 말에는 북한 사학에서 아직까지 ‘주류’를 구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때 북한의 사학계는 형성 초기 단계에 있었지요. 사실 북한의 지도부와 소련 주도의 세계 공산주의 운동 사이의 이견(異見)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소련 학자와 북한 동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같이 풀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북한의 독자적인 노선이 노골화된 뒤에는, 북한 사학도

교조(敎條)화되어 극도로 정치화됐어요.

문 : 교수님께서 1956년에 소련의 『사학 제문제』(『Voprosy Istorii』)라는 학술지에서 내신 신라의 사회경제적 구성에 관한 논문이, 북한 사학계에서의 고대 사회의 노예제 문제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촉발한 일은 잘 알려진 사학사(史學史)의 한 페이지이다. 그 때의 토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제 문제에 대한 북한 사학의 입장은,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 : 그래요, 1956년에 본의 아니게 삼국시대의 사회제도 구성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게 북한 사학자 사이의 마지막 자유로운 토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토론 때 북한 사학자 사이에서 삼국시대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한 두 개의 이설(異說)이 충돌했어요. 백남운(白南雲) 추종자들은 그대로 ‘고대 노예제설’을 견지했지만, 김광진의 ‘신진과 가 삼국에서 이렇다할 만한 노예제를 찾지 못하고 ‘봉건적 사회 관계의 형성 시기’로 보려고 했어요. 내 입장은 근본적으로 김광진 쪽과 가까웠지만, 다른 점은 삼국 시대의 과도기적 성격 - 즉, 원시 공동체적 관계의 점차적 청산, 계급 사회의 점차적 형성 - 을 내가 훨씬 더 강조했다라는 것이었지요. 한 마디로, 내가 삼국 시기를 ‘초기 봉건제’로 봤지요. 그 당시에 소련에서 1956년의 공산당 제20회 전당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 이후에 사학에서의 교조적인 접근법이 많이 극복되고 『사학 제문제』 등의 학술지에서 활발한 토론은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나도 그러한 토론에 참여하였다는 의미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북한에서의 토론에도 끼어 들어가게 됐어요. 1956년의 논문에서 나는 3~6세기의 신라 사회를 ‘봉건적 국가 형성기’로 정의했어요.

문 : 소·북 관계가 냉각해진 1960년대 초기에 북한의 어용 사학이 교수님을 포함한 일련의 소련 사학자들에 대해서 ‘규탄’의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북한과의 서적 교류나 방문 등이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답 : 사실, 1956년 8~9월의 삼국시대 사회경제 구성의 논쟁 뒤에 북한 사학에서 공개 토론이 더 이상 벌어진 일이 없었어요. ‘위대한 수령’과 당 지도부의 지시대로 가는 것이 관습이 됐고... 그때 삼국시대 논쟁을 아주 좋지 않게 봤던 사람은 그 당시의 노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만(金昌滿 1907~1966) 이었는

데, 그 사람도 결국 끝에 가서 숙청을 당하고 말았지요 사실 그들이 스탈린을 비판한 소련 공산당의 제20회 전당대회 결의 사항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던 셈이었어요. 북한은 '위대한 수령'의 길로 당당히 가고 있었어요 북한 사학의 주요 특징이 교조주의가 됐어요. 사학 연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연구가 '지시'와 '교시'에 얼마나 맞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문 : 이미 반세기 동안 북한 사학의 동향을 살펴오신 교수님께서, 북한 동료의 성공과 실패로 무엇을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위기의 원인으로 무엇을 주목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 : 당에 의한 학설의 조절이야말로 원흉이지요. 역사 연구가 '교시'와 '지시'의 입증 자료쯤으로 취급된다면,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당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었지요 역사 관계 서적의 출판이 국가적으로 장려됐으며, 그 서적들 중에서 꼭 교조적인 책만 아니었지요 김석형의 중세 사회 계급 구성 연구나, 박시형의 발해사 연구·토지 제도 연구 등의 양서(良書)도 꽤 나왔지요 400여 권의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고전들을 현대 국어로 번역·출판시키는 것은, 실로 북한의 국가적인 위업(偉業)이었지요. 남한에서도 자생적인 국역이 나왔지만, CD-ROM으로도 돼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북역(北譯)이 남한이나 일본에서 인기를 모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고고학적 연구 - 특히 구석기 연구 - 의 업적도 크게 평가해주어야 하지요. 물론, 관계도 없는 해골을 어디에선가 찾아 갖고 '단군'이라고 불러 웅대한 사당에다 안치시킴으로써 평양과 북한의 역사적 '중심적 위치'와 통일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등의 이데올로기적인 우거(愚擧)도 없지 않단 말이지요..

『삼국사기』 번역과 '초기사' 연구의 체계화

문 : 1959년이 교수님의 『삼국사기』 러시아어 번역본이 나오으로써 『동방 고전 번역』의 시리즈가 시작되는 경사(慶事)로 빛났습니다. 『삼국사기』 번역이라는 대업(大業)에 착수하실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셨는지, 어떤 연구 서적을 참고하시면서 번역하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삼국

사기』의 북역(北譯)과 남한의 여러 번역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 자신의 공부를 조금 제대로 해보려고 『삼국사기』 번역과 연구에 착수했지요. 역사의 전개 과정을 원전에서 직접 지켜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인데, 그 덕분에 일종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요. 평생에 걸린 번역의 일이었지만 그 일에 매달려 고생하는 과정에서 역사 학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느꼈지요. 내 번역본도 그렇고, 동양 고전 번역을 그 때부터 많이 냈던 동양학 연구소 부설 동양서적 출판사(Izdatel'stvo Vostochnoi Literatury)에 진심으로 고맙지요. 내 책이 그 시리즈의 효시가 된 것은 우연이겠지만... 나중에 그 시리즈에서 동양학의 재사(才士)들이 역주(譯註)한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토키 등지의 주요 고전들이 매우 많이 나왔지요. 그 출판사의 사장이었던 올레그 콘스탄티노비치 드레예르(Oleg Konstantinovich Dreyer) 선생도, 중앙 아시아의 여러 언어 전문가이었던 율리 엔노코비치 브레겔(Yuli Ennokhovich Bregel)박사도 그 웅업(雄業)의 주역들이었지요. 나와 친분이 두터웠던 브레겔 박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1964년에 소련을 떠나 이스라엘에 살았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정착하여 인디انا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 분이 키바(Khiva) 한국(汗國)의 문서의 대(大)권위자이시지요... 내 번역본의 편집자이었던 메리 라자레브나 메예르(Mary Lazarevna Meyer)이라는 젊은 여성도 꽤나 열성적으로 일했지요... 남·북한의 번역에 대한 내 의견... 난, 될 평가할 능력이라곤 없지요. 1950년대 말기의 북역(北譯)은, 주석이 소략(疏略)하지만, 정확성이 빠져나지요. 물론, 만년에 학술원 원장을 맡았던 남한의 이병도 박사의 번역이야말로 그 자체도 고전이지요. 그 번역의 초간본(初刊本)에, 나도 크게 의존했지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정구복(鄭球福) 교수와 그 분의 동료들이 만든 5권 짜리의 역주본(譯註本)은, 『삼국사기』 러시아어 완역의 제3권(잡지, 열전) 작업에서 크게 도움됐지요. 아주 크게 도움이 됐지요.

문 : 교수님께서 『삼국사기』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기반으로 하여 1979년에 저희 세대의 교과서가 된 『한국 초기사의 개요』(『Ocherki Rannei Istarii Korei』)를 내놓으셨는데, 한국에서 사학자마저도 잘 모르는 그 책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답 : 뭐 교과서가 되기에 조금 그렇지요... 내가 일단 일목요연하게 원시 사회에서의

계급 분화 과정, 삼국의 국가 성립, 그리고 후기 통일신라 사회의 분열(일종의 ‘봉건화’) 과정을 설명해보려고 했었지요. 그 『개요』의 골자가 이미 공식 대학교 교과서인 1974년의 『한국통사』(『Istoriya Korei s Drevneishih Vremen do Nashego Vremeni』) 제1권에 수록됐는데, 고고학 - 특히 구석기 시대 -에 대한 부분이 1974년의 책에 안 들어갔지요. 그 1974년의 책의 고고학 관계 저술은, 미하일 보로베프(Mikhail Vasil'evich Vorobyev) 박사가 대략 쓴 자그마한 한 장(章)밖에 없었는데, 구석기가 전혀 언급되지 못한 것은 주요 결함이었지요. 그래서 1979년의 『개요』에서, 도유호 박사가 발견한 북한 지역의 구석기 문화와, 남한의 손보기 박사가 연구했던 석장리 유적 등의 그 많은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한반도의 구석기 연구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79년의 그 책의 주요 특징이었지요. 삼국 시대 역사의 서술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하다 싶은 자료인 『삼국사기』의 내 번역에 의존했지요. 통상 소련 식 마르크시즘 용어로서 ‘고대 사회’(drevnee obshchestvo)가 노예 소유제를 의미하다 보니 그 단어를 기피하여 ‘초기사’라고 썼지요. ‘초기사’의 내 정의는, 초기 봉건 사회의 형성기라는 뜻이고요. 남북한의 사학에서는 사회적 구성의 유형에 입각한 과학적인 시대구분법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956년 이후의 북한의 경우에는, 노예 소유제를 삼국 시기로부터 고조선, 삼한 시기로 상향 조절하여, 삼국을 ‘봉건 시기’로 못박았어요. ‘초기 봉건 사회’도 아닌 단순히 ‘봉건 사회’로, 현재까지의 교과서, 통사류에서 서술되고 있지요.

문 : 『삼국사기』 번역 이외에도, 저희 제자들에게는 1961년에 발표된 교수님의 『삼국지』 동이전 부여·고구려·옥저·예맥·삼한 관련 부분의 번역·해석이 매우 중요한 원전 자료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 반영된 3세기 한반도 사회들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의 낙랑 등의 한사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 : 물론, 한사군의 존재는 한반도·동북 지역(만주) 사회들의 원시 공동체 와해·계급 분화 과정에 있어서는 촉매제 역할을 했지요. 지금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압록강·요하(遼河) 사이의 동북 지역의 영토를 ‘고유한 중국 영토로 선전하지만, 그곳은 그 때 한인(韓人)들의 선조를 포함한 동이(東夷)들이 살았던 곳이

었지요.

3세기의 동이들의 발전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삼국지』를 그대로 신뢰해도 좋다고 봐요. 남·북한에서 국가 성립의 시기를 상향 조절하려는 시도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삼국지』의 자료를 무시하는 것이 무리라고 봐야지요. 국가 성립 과정이 꽤나 빨랐던 북쪽의 부여·고구려에 비해서는, 남쪽의 삼한이 훨씬 늦어졌지요. 그 이유인즉, 낙랑 등의 한사군과의 교역·전쟁의 기회가 남쪽 한인(韓人)들에게 그 만큼 적었기 때문이지요. 낙랑의 위신제 수입·분배와 낙랑 등의 한군(漢郡) 침략과의 투쟁 과정에서 한인들 사이의 계급 분화·국가 성립 과정이 진행됐지요. 그 과정에 대한 내 이해는, 요즘 남한의 한영우 교수의 고대사관(史觀)과 매우 흡사하지요. 3세기의 고이왕(古爾王; 재위 234~286년간)때 백제에서 국가의 윤곽이 이미 나타났지만, 그 완성을 4세기 후반에 와야 볼 수 있었지요. 고구려에서는 국가 성립 과정이 비교적으로 빨랐지만, 신라에서는 4세기 이후에 와서야 국가의 기반이 다져졌지요. 남한 학자들이 이념의 개입 없이 순전히 사실(史實)에 입각할 때, 상당히 확실한 연대를 잡지요. 그러나, 이미 고려·조선 왕조 때 국가 성립의 문제에 개념적으로 접근하곤 했지요. 그리고 근세에는 소위 ‘민족 사학’은 신화(神話)뿐인 단군(檀君)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국 국가의 기원을 파헤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역사 서술을 신화에 의해서 한다면, 정확한 연대를 잡을 리는 없지요.

문 : 1995년에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삼국사기』의 제2권(고구려·백제 본기, 연표)이 나온 것은, 러시아 모든 한국학자들의 큰 경사(慶事)이었지요. 교수님께서 제2권 번역에 거의 30년 가까이 종사하신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연구 문헌을 참고하셨는지. 남·북한, 그리고 서방의 고구려·백제사 연구의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남한의 고구려·백제사 연구의 장·단점으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 30년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이 되지. 이미 1980년에 번역이 거의 다 완성됐는데, 동양학 연구소에서 출판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여 15년 동안 책을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 때 해외 연구 문헌을 많이 구하지 못하여 제대로 참고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그러나 번역 그 자체를 하는 데에 꼭 연구 문헌을 많이 참고를 안 해도 큰 무리가 안 따랐지요.

고구려·백제사에 있어서, 작년에 별세하신 프랑스의 한국계 학자인 이옥(李玉)선생이 독보적인 기여를 했었지요. 프랑스에서 자신의 학과를 만들어 후진 양성에 힘쓰셨던 그 분은, 삼국 시대사의 큰 전문가이었어요. 그 분의 고구려사 관계 저술에서는, 『고구려 본기』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독보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그 분을 빼고는, 유럽에서 특별히 삼국 시대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하와이 대학교에서 『삼국사기』영역(英譯)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장·단점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무슨 지시나 교시를 내리려는 마음이 없지요. 다만, 현존하는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석·연구 작업을, 이병도 박사와 그 학과가 다할 대로 다한 것 같고, 요즘은 자의적인 해석보다 원전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태도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문 : 『삼국사기』 완역 사업을 마감할 제3권(잡지, 열전 등)의 출간은 금년에 예상되는데, 교수님의 제자들이 맡아 했던 번역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감수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주로 겪으셨는지, 사료로서의 『삼국사기』의 가치와 한계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 내 제자들이야 재능들 좋지만, 원문과 완전히 일치되는 이해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면들도 없지 않았지요. 그래서 내가 원문과의 일치성을 엄밀히 체크하면서 책 전체가 일치된 번역의 스타일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였지요.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해도 될 듯해요. 『삼국사기』의 한계성은요? 이미 12세기에 역사에 대한 이념적·교조적 접근이 다반사이었지요. 『삼국사기』에서 기록된 사실(史實)이야 취신할 수 있지만, 그 자료의 이념성을 늘 경계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한국 초기사의 유일한 믿을 만한 사료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신채호 같은 초기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삼국사기』를 폄하(貶下)하려고 했지만, 『삼국사기』를 빼고 한국 초기사 공부를 해보세요! 단군, 기자의 전설밖에 의존할 만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삼국사기』는 그나마 거의 천년 동안의 역사 사실(史實)을 충실히 나타내, 연대 별로 나열한 것이지요. 내가 이 자료를 한국 초기사 연구의 관건으로 주목하여 러시아어로 옮긴 데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요.

문 : 지금까지 사료 번역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사관이라고 할까요, 역사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 : 역사학자로서의 나에게서는 사료 번역이란 어떠한 독립적인 의의를 가진 게 아니고 사실(史實)에의 보다 깊은 접근의 한 방안이었지요. 또 일차적 사료의 직접적 번역에 의거한 결론인 만큼, 나의 연구 결론들도 확실성을 갖게 됐지요. 나의 역사 연구의 이론적인 접근법에서는, 나는 늘 마르크스주의의 필수불가피한 사회경제 구성의 변화라는 이론에 입각하곤 했지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경제 구성(formation) 이론이 지금도 그 의미를 전혀 상실치 않았다고 봐요. 문제는, 개별적인 국가의 역사에 천착하는 각 학자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방법론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적절히 적용하는가 라는 데에 있어요. 주지의 사실이지만, 백남운 등의 1930년대의 '사회경제사 학파' 시절부터 마르크스주의는 한국사 전공자들에게 주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과 사건들을 마르크스주의의 범주에 올바르게 배치했을 보장은 전혀 없지요. 즉,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칭한다고 해서 다 무오류(無誤謬)라고 무조건 볼 수 없지요.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장군'의 '교시'와 '지시'에 알맞게 역사를 뜯어 맞추려는 소위 '주체 사관'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통속화, 단순화의 좋은 사례지요. 어쨌든, 어떤 특정 이념에 역사를 무조건 맞추려면 주관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들은 남·북 양쪽에서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어요.

역사를 깊이 있게 정확하게 보려면 사학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현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과학들도 다 그렇지만, 역사는 과거의 오류에 대한 반성·극복과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통해서 발전돼요. 그래서 사학사(史學史)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국 사학의 현실을 알려면 그 과거를 알아야 하지요. 나는 그래서 그 1987년의 『한국사학사 개요』에서 한국에서의 역사 지식·인식의 발전의 연혁을 짚어봤지요. 물론, 한정된 자료 기반, 현재의 한국사학의 소장파에 대한 파악의 결여 등으로 인해서 아주 불충분한 저서밖에 안됐지요. 요즘 한국에서 사학사 관련이 심도 있는 저서들의 출현으로 봐서는, 과학으로서의 한국사는 많이 성숙됐어요.

현실이 바뀐다고 해서 역사가 어찌 바뀌겠어요? 물론 과거에 아예 말을 못하거

나 어용(御用) 선전에서 왜곡됐던 사실(史實)들에 대해서, 최근의 역사적 변혁으로 인해서 훨씬 더 다각적인 조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사관(史觀)은 요즘의 사회 변혁에 의해서 바뀔 바가 전무(全無)해요. 여전히 객관적인, 과학적인 역사 연구를 이상(理想)으로 삼지요.

문 : 교수님의 한국학 연구의 최초 단계인 1940년대말 ~ 1950년대초에 대해 조금 더 부연(附言)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답 : 그 시기에 한문이 섞인 한글을 아직 제대로 못 읽었기에 한국 근·현대사를 대개 유럽 언어 - 러어, 영어, 불어 -로 된 자료를 갖고 봤지요 나중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나서야 남·북한 저서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문 : 선생님은 주로 모스크바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모스크바 대학과 구 소련의 한국사 관련 다른 연구 교육 기관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요?

답 : 한국사 연구는, 세계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진행됐습니다.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가 소련의 학계의 전체적인 중심지다 보니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나온 한국학 저서도 전소(全蘇)영역에서 읽혀졌지요.

한국의 역사학, 세계의 한국학

문 : 러시아의 모든 한국 학도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사학사 개요』는 늘 중요한 자료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께서 남한 사학의 민족주의적 배경을 분석하시고 ‘주체적 사관’과 같은 주요 개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근의 남한 사학은 과거의 민족주의적 교조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극복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민족주의적 사관이 고수(固守)되는 이유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책을 집필하실 때와 지금은, 남한 사학을 보시는 시각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답 : 그 1987년의 내 책도 이념성이 강했지요... 부제는 ‘남한의 부르주아 사학자의 민족주의적 개념들의 비판’이었던 만큼, 그 때의 소련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써야 했지요. 그러나, 나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무엇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사학의 발전의 윤곽을 그려주려고 했을 뿐이지요. 물론 자료가 달렸지. 만약 지금 그 책을 다시 쓸 수 있었다

면 분량도 2~3배 늘리고, 그때 참고하지 못한 조동걸 趙東杰 교수의 『현대한국사학사』와 같은 훌륭한 저작물도 반영했을 거지요. 그 1987년의 책에서는, 나는 남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사학의 발전을 설명하려고 했지요 부르주아 민족 근대 국가에서 다른 지배 이념이 불가능하니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들이 역사의 전개를 ‘민족’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 민족사가 전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극복하라고’ 누구에게 지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요 다만 같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다 해도 피상적인 역사 연구도, 훨씬 깊은 역사 연구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피상적인 연구 - 즉, 관념적인 입장에서 한국사의 여러 층위(層位)들을 억지로 그 이념에 뜯어 맞추려는 연구 - 는 학술적 가치는 없지요. 가치가 없어도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민족주의는 역사 이해의 심화(深化)에 전혀 방해되지 않지요 그들이 사는 남한이라는 사회에서 다른 패러다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이 현실을 이해하고 그 패러다임을 인위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지요 부르주아 민족 국가의 과제는 궁극적으로 언제나 민족주의의 강화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으로서 대안적 패러다임이 없단 말이지요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모습을 본격적으로 나타낸다면, 변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사실 한국 사학자들 중에서 민족주의와 무관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문 : 교수님께서 1978·1982년에 각각 일본·미국에서 객원 교수로 계시고 유럽·아시아의 각국에서 국제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시고 한국 학자의 국제 단체인 AKSE (유럽 한국학 협회)·ISKS (국제 고려학회)에서 활약하시는 등 러시아의 한국학을 오랫동안 해외에서 대표해오셨습니다. 구·미 동료들의 연구의 특징과 장단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국내의 사학이 구·미에서 취할 만한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 구·미의 한국학을 충분히 이야기하려면 책 한 권 따로 써야 하겠지요... 단순히 내 인상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외국에서 많이 활동했던 1980년대 동안 세계도,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와 자세도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부터 말해야 하지요. 나는 미국에서 Edward Wagner(하버드大 교수, 2001년 사망)와 Gary

Ledyard(콜롬비아大) 같은 한국학계의 거물들도, 그 제자들도 제법 많이 만나 봤지요. 만나보고 느낀 것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한국학에 있어서 일종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미·영·불·독은 물론, 심지어 이태리·네덜란드 까지도 한국학의 독보적인 학파들이 생긴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유럽 같으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학파는 연구자의 숫자나 연구의 수준 상으로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구·미의 학자들이 다르지 않은 주제가 거의 안남을 정도로, 한국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학이 이처럼 세계적 학문 분야를 이룬 만큼, 국내 학자들이 세계 한국학에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미국 한 나라만 해도, 미시간大, 하와이大, 하버드大, 버클리大, 콜롬비아大 등 학교마다 한국학 학파간의 차이가 상당하지요. 우리 모스크바 대학교 한국학 국제 학술 센터에서 구·미 한국학계와의 교류 - 특히 서적 교류 - 에 매우 주력하지요. 요즘 인터넷 덕분에 국제 학술 교류 사업이 수월해져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문 : 1980~90년대의 사회 변화와 함께, 러시아 사학에서 과거의 교조주의적인 검열이라는 방해물이 사라지고, 서구·한국 서적의 구입·열람의 가능성이 과거와 비교할 것 없이 넓어졌습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교수님과 교수님 제자들의 학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초석을 놓으신 러시아 한국학의 ‘모스크바 학파’가 한국 사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책과 제자들의 책 중에서 한국어로 먼저 번역됐으면 하는 책이 어떤 것입니까?

답 : 그건 잘 모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도, 꼭 어디에 기여하려는 의도도 본래 없었지요. 우리야말로 겸허하게 공부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요. 우리는 남·북의 사학, 구·미의 사학으로부터 배울 게 무지 많아요. 내 과제가 밖의 한국학에서 취할 것을 취한 뒤에 모자라는 것을 약간 보태줄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내 책이나 제자들의 책? 모르겠어요. 활자화된 본인의 저서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얼마나 모자라는가, 얼마나 고치고 보충할 게 많은가를 더 절실히 느끼지요. 그걸 가지고 남한에서 출판한다는 것이 무리 같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내 1권 짜리 『선집』이 출판 준비중인데, 수정·보충이 어느 정도 된 이 책을 동·

서양의 독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학과 고려민족을 위한 봉사

문 : 사회적 변혁의 일환으로, 교수님께서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적인 활동의 기회도 훨씬 많이 가지시게 됐습니다. 1987년에 교수님께서 모스크바 고려인 (재소 동포) 협회의 발기를 주도하셨으며, 1991년에 전소(全蘇) 고려인 협회 회장에 선임(選任)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들의 고려 민족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으로서 고려민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무엇을 가장 적당히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 1937년의 강제 이주로 인한 가장 큰 손실은, 우리 고려 민족의 정체성 상실이었지요. 경제·사회적 차원만 생각한다면, 고려인들이 소련의 타민족들 못지않게 사회주의 건설에 -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회주의 파괴에 - 기여한 것이지요. 198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미 소련 체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소련의 붕괴가 이처럼 빨리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소련의 붕괴는 우리 고려 민족에 큰 타격을 입혔지요. 붕괴 이전에 그나마 한 나라 안에서 전 민족이 살았는데, 지금 15개의 독립 국가에서 흩어져서 살지요. 흩어진 우리 고려족에 단결력을 주는 것은, 러시아어라는 공통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고려족의 민족언어가 러시아어라는 것은 현실이라고요. 소련 붕괴를 앞두고 있었을 때, 고려인처럼 자치구가 없는 약소 민족이 불행을 겪을 것 같은 예감이 강했지요. 그때 나에게 일군의 민족 원로가 민족 부흥 운동의 앞장에서 달라고 부탁했지요. 나는, 가능한 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보겠다고 답했어요. 물론, 나는 연해주에서의 자치구 복구 등의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를 말하려는 의도는 없었지요. 이미 민족이 흩어진 상황인데 한 군데에 다 모아 놓을 수 없단 말이지요. 다만, 정치성이 배제된 언어와 전통, 풍습 - 즉 한 마디로 민족적 정체성 -의 회복이야말로 고려인의 민족 운동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돼요. 자치구 복구와 같은 정치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불행밖에 당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소련 붕괴의 과정에서 큰 손실을 많이 봤지요. 내전에 휘말린 타지키스탄 (Tadjikistan) 공화국의 모든 고려인 (약 1만3천 명)들이

다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중에서 지금도 상당수가 정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들을 지원하는 3.1 문화원의 이형근 목사의 초청을 받아, 그들이 사는 볼고그라드 지역에 가본 일이 있어요. 궁핍이 심하지만 아사(餓死)할 지경이 아니지요. 우리가 맞는 노선을 택한 것 같아요. 소련이 비록 붕괴돼도, 우리 고려인 문화 센터들이 러시아 연방의 많은 지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카자흐스탄 - 심지어 에스토니아 (Estonia)까지 - 다 존재하지요. 에스토니아에서 3명의 동포밖에 없는데도 말이지요.. 다들 서로 연락하고 사업하는데도 도움을 주고받고 그래요. 나야 문화밖에 관심사가 없었지만, 현실 감각이 강한 우리 동포들이 돈 없는 문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지요. 사실, 최근에 동포들 중에서 크게 치부(致富)한 이들도 비일비재해요. 신문 상에서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최강의 로비력 소유자 중에서 '튜멘 네프티' (Tumen' Neft')사의 G.P. 한씨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시베리아의 한 북부 지역인 튜멘에서 까지 고려인들이 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역사의 타격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예요.

우리를 돕는 일...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앞장서지요. 사실, 소련과 오래 친했던 북한이 많이 도와주어야 했는데, 그들이 '홀통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유지시키느라 대외 교제를 할 여유가 없는 셈이지요. 달팽이처럼 껍질 속으로 들어가 바깥세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요. 북한과 달리 남한은 국가 차원에서도 민간차원에서도 고려인 민족 정체성의 회복에 크게 기여했어요. 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들이 일을 많이 하지요. 대사관 산하 문화·정보 센터도 있고, 우리 고려인에게도 고려인 자체의 문화원을 신설하는 데에 도와주었지요. 문화원으로 쓸 레닌그라드대로 45번지 건물을 구입·개조하는 데에 크게 도와주었지요. 그게 옛날 유치원 건물인데, 강의실이 참 좋아요. 지금 회사 사무실들이 많이 입주했는데, 문화적 행사도 치러지지요. 그 일에 권병현(權丙鉞) 이사장이 이끄는 재외동포재단이 25만 달러 정도를 출자했지요. 능력이 있는 대로 도움을 주면 우리가 고마울 뿐이지요. 한국학을 돕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모스크바대학교 한국학 국제 학술 센터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지요. 물론, 지원 액수는 남한의 경제 상황에도 달려 있어요. 우리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한글 학교에서 언어, 문화를 배우는 차

세대는, 이 도움에 커서도 고마움을 느낄 것이에요. 물론, 고려인들이 어디로 이민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커서도 러시아에서 계속 살 러시아 시민들이지요. 그러나, 이미 많이 상실된 민족의 유산을 간직했으면 해요. 사실, 우리는 대인 관계의 문화 같은 것을 많이 잃었어요. 요즘 어른들이 젊은이로부터 받는 대접을 보면 마음이 크게 아프지요.

문 : 교수님께서 1991년에 설립하시어 현재까지 이끌어오신 모스크바대학교 한국학 국제 학술 센터는, 러시아의 한국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요. 교육·학술·한국학 대중화 등의 방향에서의 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답 : 우리 센터의 설립 목적은, 한국사 연구의 심화이었지요. 실제 활동 개시의 기점으로, 1992~1993년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한국학 시리즈’에서 이미 10종 이상의 전문적 학술 서적을 냈어요. 국내외 석학의 선집도 낸 일이 있어요. 예컨대, 러시아의 한국 어학·신화학의 원조인 콘체비치(L.R.Kontsevich) 교수의 선집을 냈어요. 물론, 우리 센터의 중심적인 사업은 어디까지나 『삼국사기』이었어요. 1959년에 출간된 러시아어 번역본의 제1권이 작년에 영인본으로 다시 나왔고, 제2권은 1995년에 출간됐어요. 제자들이 번역했으며 내가 감수한 제3권은, 곧 출간될 셈이에요. 우리는 한국고대사의 교수도, 학생 세미나도 대개 『삼국지』동이전,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하지요. 그리고 한국학계의 명저들을 러시아 학생,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과업이라고 봐요. 예컨대, 조동걸 교수의 저서들이 꼭 번역될 만하지요. 지금 우리는 서울대 사학과 한영우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번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목의 정확한 번역부터 문제지요. 러시아어로 딱 알맞은 번역어가 없단 말이에요.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이지요.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어디 이뿐입니까?

문 : 교수님의 교수 경력은 이미 반세기 넘으셨고, 모스크바 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부 (ISAA) 극동·동남아 역사학과와 학과장으로 20년 넘게 재직하셨습니다. 이미 팔순을 넘기셨음에도, 늘 젊은이처럼 활약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울러 한국학자로서의 평생을 선생님 스스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 : ‘비결’까지는 없지요. 내가 무슨 철인(鐵人)이 아니거든요. 사실, 청년 때 많이

아팠고, 제2차 세계 대전 시절에 영양 실조 등으로 체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전후(戰後) 시절에 이미 만성병에 시달리면서 장수를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일하려는 욕심이 많았고, 일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육(智育)에다 늘 체육을 했어요. 늘 아침마다 밖에서 체조와 달리를 한 지 이미 52년이 지났어요. 날씨가 어떻든 간에 늘 아침마다 조깅을 해요 그래서 무슨 유행병에 전혀 안 걸리지요. 금년 같으면, 감기마저 걸린 일이 아직 없었어요. 조깅을 할 때, 사색도 하고, 하루 일정도 생각하고 다 해요. 그렇게 사니까 일을 할 수 있지요. 만약 일을 못한다면 왜 살아요? 지금 모스크바 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부 (ISAA) 아랍어학과 부교수로 있는 장남의 딸이 얼마 전에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어요. 이 손녀가 학자가 되리라고 기대해요.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았지요. 보람이 있는 인생이라고 봐요. 늘 제자와 자녀들에게 신경을 써왔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녀들도 내 기대에 미쳤지요.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어렵게 시작된 인생이고 행복과 불행이 다 뒤섞이지요. 이미 끝날 무렵이니 하나님께 감사 드려요.